



제1742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2200-500·222-8111

# 光州日報 Weekend

www.kwangju.co.kr

2006년 4월 15일 (음력 3월 18일) 토요일

The Kwangju Ilbo

光州日報와 함께  
행복한 주말을

Weather

광주·전남 휴일 날씨

15(土)	16(日)
구름 많음 7 / 17°C	구름 조금 5 / 14°C

News

- 공천비리 파문 확산 ②
- 동남아유학생 달라진 생활 ③
- 안시현 “이번엔 내 차례” ⑯



Jeollado

- 도선국사의 풍수사상 ⑦

Entertainment

- 가수 꿈 이룬 ‘메이비’ ⑧
- 유럽·영화 ‘10%대운동’ ⑨

Books

- 유럽여행 알짜 가이드 ⑩
- 김용택씨 여덟번째 시집 ⑪

Wellbeing

- 식품 집중 탐구-당근 ⑬



- 광주체고 女 力士 이애라 ⑯

## 말바우시장 국밥집 ‘구수한 전람회’

### ■ ‘국밥에 담긴 그림전’ 화제

전람회가 시장통 골목을 찾았다.  
화가와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말바우 시장 국밥집 벽에 내걸렸다.

북구문화의 집이 14일부터 한달동안 갖는 ‘국밥에 담긴 그림 展’은 말바우시장 국밥집에 대원순대·대존국밥·홍도식당·밥양식당에 박문종·박수만씨 등 10명의 청년 작가가 작품을 내걸고 2명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생활 속의 전시회로 기획됐다.

길게 늘어지는 장날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그림과 사진으로 보여진다.

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말바우 장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.

길판지에 한 상 차려놓은 잔치 집 마냥

끊임없이 손님이 오가는 골목에 삶의 진실이 있음을 누구나 안다. 작가들의 표현은 모두 이 대목에 몰려있다.

그들이 국밥에 그려낸 그림과 사진은 다양하다.

어느 손님이 국밥집에 들러 텁텁한 막걸리를 한 잔 걸친 뒤 남겨진 잔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, 손님을 받는 주인장의 손길이 포커스이기도 하다. 보글보글 끓어 오르는 곱창의 비릿한 냄새까지도 느껴진다.

국밥집 입구와 메뉴판곁에 그림이 걸쳐 진 공간에서 이뤄지던 전시가 아닌 사람이 묻어나는, 이야기가 들리는 시장통을 전시 공간으로 삼았다.

예술은 고상한 곳에서만 자리한 것이 아



14일 ‘국밥에 담긴 그림 展’이 열린 광주 말바우시장 국밥집 골목에서 참여 작가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. /나영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이 될 수도 있다.

그러나 작가들은 사각 형태의 틀에 짜여진 공간에서 이뤄지던 전시가 아닌 사람이 묻어나는, 이야기가 들리는 시장통을 전시 공간으로 삼았다.

예술은 고상한 곳에서만 자리한 것이 아

나리 생활 속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말바우 시장 전시회가 보여주고 있다.

주말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국밥 한 그릇, 막걸리 한 사발에 그림과 사진을 얘기해보자.

/윤영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## 박상배 前 産銀부총재 등 2명 체포

### 검찰,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 관련

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4일 박상배(60)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2명이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,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.

검찰 관계자는 “수위와 아주 금속공업(이)

이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담보부채권을 뒤사들이는 과정에 박 전 부총재와 이성근(57) 산은캐피탈 사장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오늘 아침 8시께 긴급체포했다”고 밝혔다.

박 전 부총재의 입행 1년 후배인 이 사장은 부채탕감 비리 사건 당시 박 전 부총재 밑에서 투자본부장으로 일하며 위아 채권 1천425억원 매각부무를 담당했다. 검찰은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범죄 연루 정황을 우회적으나마 언급한 점에 비춰 조사를 거쳐 늦어도 1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.

검찰은 또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 비리

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 임직원 수명을 출금조치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.

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위야에 대한 1천억원 상당의 담보부채권을 자산관리공사(캡코)에 매각했다. 캡코의 풋백옵션(put-back option) 행사로 다시 뒤사들인 뒤 이 채권을 공매에 부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)에 795억원에 싸게 팔았다.

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로비자금을 제공받은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(57·구속수감)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부실채권 매각·재매입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. 이들은 또 위야와 아주금속공업 채권을 CR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낙찰 승인 기액을 특정 CRC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한편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정몽구 회장과

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 “4월 말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”고 말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가 종결될 것임을 시사했다.

/연합뉴스

##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

### 코스피지수 1,432.72 기록

코스피지수가 1,430선에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7.00포인트(1.92%) 급등한 1,432.72로 마감했다. 지난 1월 16일 기록한 전

고점(1,421.79)을 훌쩍 뛰어넘어 장중 한때 1,434.68까지 오르며 증시 역사를 새로 썼다.

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698조9천770억원으로 늘며 7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게 됐다. 코스닥시장까지 합친 전체 시가총액은 773조원으로 늘어났다.

/정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## 與 전남지사 후보 서범석씨

열린우리당은 14일 5·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지사 후보로 서범석 전 교육부 차관(시진)을 확정했다.

열린우리당은 지난 12~13일 이를 통해 서범석 후보와 송하성 경기대 교수 간 경선을 실시,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.

경선은 기간당원 30%, 일반당원 20%, 일반국민 50%에 가중치를 둔 여론조사(1천 200명 대상)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서 후보는 50.58%의 지지를 얻어 49.42%의 지지를 얻은 송 교수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.

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, 교육부 차관 등을 지낸 ‘교육통’인 서 후보는 “전남을 제일가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”는 포부

를 밝혔고, 송 교수는 “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정후식기자 who@kwangju.co.kr

## 난, 변하고 싶어



내가 변덕장이라구?

천만의 말씀!

난 상큼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.

센스틱 쪽쪽뻥튀기 있으니까

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

과일향까지 – 입술이 변한다.

상큼하게 –



아빠나운 입술  
**SENSTICK**

센스티비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
-액시-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세대  
면풀향 헌연과 페퍼향으로 저속합니다.  
입물다. 서화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
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.  
그다만 물 위로 편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.

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

KUKJE 국제약품

<http://www.kukjepharm.co.kr>

남부대학교

<http://www.nmbu.ac.kr>

전남과학대학

<http://www.chunian.ac.kr>